

70 돌기념사업통신

朝鮮大学校寄宿舎建設委員会事務局
〒187-8560
東京都小平市小川町 1-700
TEL 042-341-1331
FAX 042-344-1300
E-mail: rijikai@korea-u.ac.jp



2025년 7월



제 2 차 建設委員會가 전형

建設委員會를 創立 70 周年記念事業実行委員會로 改編



7월 13일 제 2차 建設委員會가 朝鮮大学校 식당상층에서 進行되었다. 회의에는 리청민, 리영일 共同委員長을 비롯한 건설위원들 45 명과 박충우 商工連會長을 비롯한 來賓 13 명, 한동성學長을 비롯한 초대教職員들 28 명, 合計 86 명이 參加하였다.

開會宣言에 이어 冷温風機設置以後 學生들의 寄宿舎生活과 建設위원들에 對한 感謝의 挨拶를 담은 映像을 參加자들은 喜悅한 心정으로 視聽하였다.

이어 리청민공동위원장이 오늘의 회의를 계기로 建設委員會를 70 돌記念事業実行委員會로 改編할 것을 宣言하였다.

다음으로 各 分科마다 事業報告를 하였다.

建設分科에서는 랭온풍기설치공사와 電氣設備工

事가 5 월에 성과적으로 完了되었다는것과 6 월부터 2 호관의 耐震改修工事が 予定대로 推進되고있 다는것을 보고하였다.

募金分科에서는 7 월 10 일까지의 募金実績을 보고하였다. 入金額이 168,539,185 엔 , 約束額이 215,496,009 엔, 合計 384,035,194 엔으로서 이는 1 次集計目標인 5 億 8 千万圓의 66.2%가 되는 금액이다. 모금분과에서는 当初에 目標로 하던 65%를 넘쳐達成하였다는것을 자랑차게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대학入學生確保를 위한 對策을 강구하는 《教育對策分科》와 70 돌행사를 企畫執行하는 《行事分科》를 새로 내올데 對한 提起가 採択되었다. 各 事務局長을 맡은 김양승, 송수일학부장들이 構想에 對하여 發表하였다.

학생기숙사募金 目標額의 66%를 달성!

모임의 맺음을 리영일공동위원장이 장식하였다. 리영일공동위원장은 불과 10 개월사이에 모든 寄宿舍에 랭온풍기가 設置되었으며 모든 学部同窓會 들에서 2千名이 参加하는 78 회의 모임이 조직되고 募金目標를 超過達成하는 기적과 같은 현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하였다. 또 건설위원과 대학교직원에게 激勵를 보내면서 기어이 來年 3月까지 모금목표를 達成하여 보란듯이 기숙사를 일떠세우자고 호소하였다. 그와 함께 명년 11월 15일에 予定하는 70 盾記念大祝祝典을 過去最大數인 3千名の 卒業生을 포함한 6千名以上の 同胞들로 들썩거리게 할것을 새로운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회의에 이어 祝賀宴이 進行되었다. 박충우상공련합회 회장의 祝杯선창에 이어 學生들이 出演하는 小公演이 披露되었다. 觀者들은 공연의 藝術

性뿐 아니라 그들의 맑은 눈동자에 感動을 금치 못해하였다.

《草創會》사무국장인 문학부 3기 문홍장씨, 朝青中央副委員長인 정경학부 56기 량상태동무, 1천만엔을 희사해주신 황영철顧問, 故홍남기理事長의 夫人이신 력지학부 18기 리범자씨, 올해부터 새로 理事로 就任하여 실행위원으로 망라된 정경학부 42기 백임씨들의 대학사랑, 후대사랑에 넘친 감동어린 發言은 듣는 사람들에게 큰 感銘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정경학부 강태룡회장과 경영학부 강상현회장은 기숙사모금사업을 끝까지 맨 선두에서 責任져나가겠다는 決意를 表明하였다.

참으로 대학사랑, 후대사랑의 정성이 분출된 감동적인 하루가 되었다.



인사를 하는 리청민공동위원장



86 명이 참가

건설분과사업을 보고하는 박준영사무국장(부학장)

입금액 1 억 6853 만 9185 엔
약속액 2 억 1549 만 6009 엔
합계 3 억 8403 만 5194 엔



모금분과사업을 보고하는 은종인차장(부리사장)



교육대책분과의 구상을 보고하는 김양승학부장



행사분과의 구상을 보고하는 송수일학부장



맺음인사를 하는 리영일공동위원장



축배선창을 하는 박충우상공련협회 회장





사회를 맡은 김창문리사



참가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 학생공연



높은 예술기량을 발휘한 학생소조원들



래빈 및 위원장, 부위원장



정경학부, 경영학부 참가자



리학부, 리공학부 참가자



교육학부 참가자



문학부, 력지학부, 문력학부 참가자



정경학부 참가자



외국어학부, 리학부 참가자



《초창회》 사무국장인 문학 3기 문홍장씨



조청중앙부위원장인 정경 56 기 량상태동무



고액을 희사하여준 후쿠시마 황영철고문



고 흥남기리사장 부인인 력지 18 기 리범자씨



새로 리사로 취임한 정경 42 기 백임씨



고액의 모금을 선포한 정경 41 기 리대성씨



마지막에 등단한 정경 강태룡회장과 경영 강상현회장



맺음을 한 한동성학장



새로 지을 1,3 호관의 모형을 보는 참가자들



내진개수공사가 진행되고있는 2호관

리영일공동위원장의 挨拶要旨

작년 9 월에 建設委員會結成모임을 가진 후 단 10 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오래도록 所願이었던 랭온풍기가 創立以來 처음으로 기숙사에 설치되는 천지개벽이 일어났는데 참으로 기적을 본것과 같은 심정입니다.

불과 10 개월밖에 안되는 짧은 期間에 모든 学部同窓會에서 78 번의 크고작은 모임을 조직하여 여기에 연수 2 천명을 網羅하였으며 67 년간에 걸쳐 卒業한 全 學級數 704 개중 72%가 되는 501 개의 學級代表들과 사업을 진행한다는 지난 시기 있어보지 못한 강도로 猛烈한 活動을 벌였습니다.

이 기간 바쁜 속에서 시간을 짜아내어 일본 각지를 다닌 學部會長을 비롯한 建設위원 여러분과 授業과 學生지도를 보장하면서 75 번의 동창회모임을 조직하여 500 명을 넘는 기 대표들과 사업을 한 學部先生님들에게 마음속으로부터 感謝와 激勵의 인사를 보냅니다.

기적은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여러 모임에서 모금운동을 제기하는 속에서 랭온풍기를 설치하면 앞으로 維持費가 높아져 입학생이 더더욱 적어지지 않으나, 初中의 유지가 어려운데 대학까지 支援할수 없다 등 消極的인 意見도 적지 않은 속에서 建設위원회 副委員長 2 명이 1 千万圓의 高額을 회사함으로써 募金運動의 봉화를 올려주었습니다.

그 氣勢는 멈춤이 없이 오늘 시점에서 13 명이 1 천만엔을 내겠다고 해주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까지 바칠대로 바쳐오신 많은 어르신 선배들이 어찌서 이렇게 펼쳐나주시는것입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이역땅에서 조선사람으로 몇몇이 키우는 民族教育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이 貴重하고 소중하기때문입니다.

민족교육이 있어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선구자, 총련結成世代의 애국정신이 이어질수 있다는 것이 眞理이기때문입니다.

1 세들은 우리들보다도 가진것이 없었습니다.

가진것은 人間の 尊嚴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민족교육에 대한 渴望이였습니다. 그 사랑과 갈망이 얼마나 컸으면 오늘처럼 기적과 같은 幼稚園으로부터 大學에 이르는, 그것도 教科書와 敎員까지 자체로 解決하는 민족교육체계를 만들어놓을수 있었던것입니다.

우리 세대도 마음먹으면 반드시 할수 있습니다.

명년 3 월까지 반드시 모금목표를 달성하여 보란듯이 새 기숙사를 일떠세우며 출생물이나 경제지수 등의 變化된 環境에 柔軟히 対応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일본에 사는한 민족교육을 지켜내는데 펼쳐나섭시다.

우리에게는 민족교육체계와 함께 團結의 傳統이라는 先代世代가 남겨준 커다란 財産이 있습니다.

래년 11 월 15 일에 예정하는 創立 70 週紀念大祝典에 졸업생 3 천명을 포함한 6 천명의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힘으로 찬란한 在日同胞社會를 꾸려나갈 새로운 挑戰을 자랑차게 선포하는 일대정치행사로 맞이할것을 실행위원회의 또 하나의 目標로 제기합니다.

건설위원여러분! 우리 서로 힘을 합쳐 후대들을 위해, 찬란한 미래를 위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총련결성세대에 못지 않게 펼쳐나섭시다.

- 1,3 호관 건설이메지 -



대학창립 70 돌기념대축전
(후보날)2026년 11월 15일(일)

70년을 자랑하고 100년을
내다보며 영원히 기억과 기록에
남는 행사로 장식하자!!